



‘집단 괴롭힘’과 갈등해결을 위한 성서적 대안연구:

시편 109편과 창세기 16장을 중심으로¹

이일레(서울신학대학)

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집단 괴롭힘’은 청소년 비행의 한 형태에 머물지 않고 점차적으로 정치·사회·문화·경제 전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² ‘집단 괴롭힘’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기형적 사회현상중의 하나이며, 1973년 P.P.하이네만은(Heinemann) 노르웨이어인 ‘mobbing’ (떼지어 공격하기)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집단 괴롭힘’을 표현한다.³ 한 개인에게 집단

1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9S1A-5B5A07092148).

2 김혜원,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서울: 학지사, 2013), 37; 구체적으로 김혜원은 그의 연구서에서, KINDS로 검색한 결과, 집단 괴롭힘의 관련기사 총 3,538건 중 청소년에 관한 기사는 30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다른 연령집단에서 벌어진 기사였다고 보고한다.

3 윗글, 32; 참조, K.S. Berger, “Update on bullying at school: Science forgotten?” *Developmental Review*, 27(1), 2007, 90-127.

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집단생활을 유지·결속시키는 기형적 전체주의와 집단주의는 오랜 기간 인간과 동물세계에 존재해왔다.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 내에서 이질적 요소를 동질화하는 방식으로 또는 증오를 제삼자에게 발산시켜 집단의 왜곡된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폭력적 ‘집단 괴롭힘’이 사용되고 있다. ‘집단 괴롭힘’의 잔인한 가해행위가 급증하면서,⁴ 현대 사회의 ‘집단 괴롭힘’은 자살, 살인 방화등 심각한 문제와 대형 사건으로 이어진다.⁵ ‘집단 괴롭힘’의 사례가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사회 안팎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⁶ 최근 발생하는 대형사건·사고도 심각한 ‘집단 괴롭힘’이 그 원인으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구약성서는 이와 같은 ‘집단 괴롭힘’이라는 집단주의의 폐단과 기형적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대응·예방·조정·대책을 위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사회 외곽으로 밀려난 ‘집단 괴롭힘’의 희생자들에게, 성서 사건을 모델로 해결방안의 새로운 창구를 제시할 수 있을까?

시편 109편은 매우 복잡적이며 총체적인 인간의 삶을 형상화 하고, 인간의 중요한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저주를 다루고 있다.⁷ 시편 109편에서 시인은 원수들의 저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강조하며 탄원한다.⁸ 시편 109편에서 발견되는 원수들의 저주 행위를 ‘집단 괴롭힘’으로 유

4 김규태, 방경곤, 이병환, 윤혜영, 우원재, 김태연, 이용진 공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파주: 양서원, 2013), 21; 김혜원, 윗글, 97.

5 김소영, 노강욱, 「교사를 위한 학교폭력의 이해」(서울: 창지사, 2013), 56; 이규미, 지승희, 오인수, 송미경, 장재홍, 정재영, 조용선, 이정윤, 유희근, 이은경, 고경희, 오혜영, 이유미, 김승혜, 최희영,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편」(서울: 학지사, 2014), 29; 김혜원, 윗글, 32-35.

6 이규미, 윗글, 263; 이관직, 「목회심리학」(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42-43.

7 서인석, “복수와 저주의 시편”, 「오늘의 구약성서 연구」(1991), 209-231; Chalmers Martin, “시편에 나타난 저주” 윤영탁 역, 「구약 논문집」(1) (1981), 115.

8 김경수, “시편 가운데 ‘복수와 저주’의 요소를 어떻게 읽을까? 시 109편의 분석을 통해”, 「교수논문집(한영신학대학교)」 2 (한영신학대학교, 1998), 73-92.

추해 낼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시편 109편의 탄원의 세계가 ‘집단 괴롭힘’의 정황에 기초해 있는가를 진단하고, ‘집단’을 형성한 시인의 원수들이 저주를 통해 자행하는 심각한 기형적 사회현상을 분석하며, 이를 단초로 ‘집단 괴롭힘’과 갈등해결을 위한 ‘성서적 대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재의 한계성을 넘어서, 다양한 성서 사건에 관한 조직적 분석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창세기 16장의 하갈의 이야기를 본 연구의 주제 탐구를 위한 또 하나의 본문으로 수용한다. 창세기 16장 하갈의 이야기는 이 사건은 사라의 박해와 하갈의 도망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우리는 ‘억압모티브’를 관찰할 수 있다.⁹ 아브라함과 사라의 박해로 인한 하갈의 ‘나그네살이’를,¹⁰ 가족 공동체의 갈등구조를 넘어서 ‘집단 괴롭힘’으로 규명할 볼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형성하는 가족 갈등 구조를 ‘천착해 보고, 이를 단초로 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단 괴롭힘’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편 109편과 창세기 16장에 동일한 신학적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집중한다. 각각 두 본문에 사용된 공통적인 제재를 파악하고 상호간의 대화를 연구하여 ‘집단 괴롭힘’과 갈등해결을 위한 ‘성서적 대안’을 찾고, 신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 방법론 및 선행연구사

시편 109편과 창세기 16장, 두 본문이 어떻게 하나의 연구주제로 묶일 수

9 박성진, “문학적 접근: 하갈의설화에 나타난 광야와 구원의 역사”, 『경성대학교 논문집』(경성대학교, 2000), 169; H. Gunkel, *Genesis*, translated by Mark E. Biddle; foreword by Ernest W. Nichols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186; Phyllis Trible,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 (OBT; Philadelphia: Fortress), 1984, 9-35.

10 한동규, “나그네살이 인생과 자손의 약속 (창 16장)”, 『구약논단』, 제 23집(2007.3), 21.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과 기존 연구사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시편해석에 있어서, 상호텍스트성으로 접근하는 최근 연구 방향을 살펴보면, 에슬링어(L. Eslinger)는 그의 연구논문에서 성서내부의 본문간의 상호 관련성을 지적한다. 그는 서로 참조가 가능한 각각의 본문을 해석할 때 이들 본문의 정확한 연대 측정(Datierung)이 불가능할 경우, 성서 주석(Exegese)은 한 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성서 내부적 주석” 대신 “성서 내부적 상호텍스트성(innerbiblical intertextuality)”으로 읽기를 제안한다.¹¹

하우토른(J. Hawthorn)은 시편제목으로 상호텍스트성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시편제목은 또 하나의 텍스트이다. 하우토른은 시편 제목을 내러티브 텍스트와 시편의 본문, 두 텍스트를 연결하며, 상호텍스트성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있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이해한다.¹²

바일(U. Bail)은 히브리 성서는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관계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지적한다.¹³ 바일은 호스펠트와 쟁어가 제시한 정경 비평적 접근이 시편 해석과 관련하여 통합적 이해의 장을 시편자체 내로 제한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⁴ 그는 이를 넘어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ät)을 통해서 시편 6편과 55편을 다윗의 딸 ‘다말’의 관한 내러티브 텍스트(삼하 13:1-22)와 함께 읽는다. 바일은 개인 탄원시 6편과 55편의 “시편의 언어”를 통해서 다말의 저항을 재구성하며, 시편 6편

11 L. Eslinger, Inner-biblical Exegesis and Inner-biblical Allusion: The Question of Category, VT 42 (1992), 56.

12 J. Hawthorn, *Grundbegriffe moderner Literaturtheorie: ein Handbuch* (Tübingen-Basel, 1994), 149.

13 U. Bail, *Gegen das Schweigen klagen. Eine intertextuelle Studie zu Ps 6, Ps 55 und der Erzählung von der Vergewaltigung Tamars* (Gütersloh, 1998), 98.

14 시편 상호간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시편을 해석한 호스펠트와 쟁어는 그들의 주석서에서 시편을 정경 비평으로 해석하며, 시편 전체 150편에서 시편 각각의 내부에 살아 숨 쉬는 신학적 표현들을 개별적 제한적 표현에서 반복적 일반적 표현의 지평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시편이 다른 시편을 해석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시편 상호간에 끊임없는 유기적 관계에 의해 작동되는 해석학적 형태에 주목한다.

을 다말의 시편으로 읽으며 (성)폭력의 희생자 다말의 트라우마를 재조명한다.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내러티브 텍스트(삼하 13:1-22)와 시편의 대화를 시도한 바일의 노력은 (성)폭력의 희생자들에게 고통과 트라우마로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제적 모델 제안하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된다.

이일레는 그의 연구논문에서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출애굽기 1장 15-22절과 시편 34편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시편 34편을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 살인명령에 대한 공포로 곤고해진 히브리 산파들의 언어로 읽는다.¹⁵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경외’ 사상으로 파라오에 저항하며, 그들의 후속세대에게 이를 파라오의 폭력을 종결시킬 수 있는 길로 제시하고 있는 현상을 밝힌다. 동시에 히브리 산파들의 고난의 결정적 해방 요인으로 작동한 하나님 경외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으로 태동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상호텍스트성을 창구로 하여 시편 109편과 창세기 16장을 함께 읽는다. 상호텍스트성은 모든 텍스트는 근본적으로 다른 텍스트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출발한다. 크리스테바(J. Kristeva)는 모든 텍스트는 각각 다른 텍스트와 대화한다는 사실에 출발하여 상호텍스트성의 이론을 발전시켰다.¹⁶ 그는 특별히 바흐틴(M. Bachtin)의 대화의 개념을 수용·비평한다.¹⁷ 바일은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들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공시적으로 서로 대답하고 대화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부여된다”고 이해한다.¹⁸ 동시에 그는 텍스트들 사이의 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15 이일레, “히브리산파들의 저항과 ‘시편 언어’의 친연성(親緣性)-상호텍스트성으로 본 출애굽기 1:15-22절과 시편 34편 -” 「구약논단」, 66집 (2007년 12월), 42-73.

16 Inge Suchsland, *Julia Kristeva zur Einführung* (Hamburg, 1992), 79.

17 U. Bail, *읽글*, 102.

18 U. Bail, “Vernimm, Gott, mein Gebet. Ps 55 und Gewalt gegen Frauen”, Hedwig Jahnow(ed.), *Feministische Hermeneutik und Erstes Testament. Analysen und Interpretationen* (Stuttgart-Berlin-Köln 1994),

78

접촉점(Anknüpfungspunkte)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상호텍스트성에서 이정표(Markierungen)는 텍스트들 간의 내용상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도구이다. 브로히는 상호텍스트성을 위한 이정표로서, 제목, 소제목, 모토, 서언, 후기, 이름, 활자면(Schriftbild), 양식변화, 구조 유사성 등을 관찰(Anmerkung)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⁹ 또한 다른 문학작품의 인물들의 행동과 태도(Auftreten), 핵심 인물 등을 통해서 우리는 상호텍스트성으로 연결된 텍스트들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정표는 저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텍스트에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일은 브로히의 이해를 저자에 의해 의도된 관계에 제한되는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개념으로 규정하면서, 이처럼 동일한 이정표들이 “무의식적으로” 텍스트에 기록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또 우선적으로 독자들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울리케 바일은 개인 탄원서 6편과 55편에 부쳐진 제목을 텍스트들 사이의 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접촉점으로 이해한다. 바일은 이러한 관계의 방향(Richtung)은 항상 정해져 있는 없다고 이해한다. 텍스트들은 시간상으로 ‘앞으로부터’도 ‘역으로도’ 서로 관련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각각의 모든 작품은 다른 각각의 작품의 연대와 무관하게 상관관계를 형성한다.”²⁰ 텍스트의 의미가 변경될 수 있는 것처럼 연결의 방향이 변경될 수 있고, 텍스트들은 서로 대화 속으로 들어간다.²¹ 반 볼드(van Wolde)는 상호텍스트성은 ‘비교연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²² 본 연구는 이 견해를 수용하여 시편 109편과 창세기

19 Ulrich Broich, “Formen der Markierungen von Intertexten”, Ulrich Broich/Manfred Pfister(ed.), *Intertextualität. Formen, Funktion, anglistische Fallstudien* (Tübingen, 1985), 35.

20 U. Bail, *Gegen das Schweigen klagen*, 106.

21 K. Stierle, *읽글*, 10.

22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476;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1), 257; H. J. Kraus, *Psalmen, BK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924; Hossfeld, F.-L. and Zenger E., *Psalms 3: A Commentary on Psalms 101-150* (Augsburg: Fortress Press, 2000), 128.

16장을 상호텍스트성을 방법론으로 분석·관찰하고 연구한다.

3. '집단 괴롭힘'으로 경험 하는 저주(시 109)

1) 시편 109편 6-19절에 관한 연구사

시편 109편에서 집단적 폭력으로 집단생활을 유지·결속시키는 기형적 집단주의의 '집단 괴롭힘'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을까? 시편 109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된다. 동시에 "저주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저주를 시편 전체 1/3에 해당되는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²³ 시편 109편의 선행연구는 특별히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6-19절에 집중한다.²⁴ 다이슬러(Alfons Deissler)는 6-19절에 나타나는 저주의 내용을 근거로, 시편 109편을 기독교인의 기도로 수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⁵ 스테르크(W. Stärk)는 그의 연구서에서 시편 109편의 중간 부분, 6-20절을 지울 수 있다면, 몸과 영혼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 보내는 가장 섬세한 기도를 갖게 된다고 요약한다.²⁶ 특별히 연구하는 기독교 신앙과의 연대 속에서 6-19절에 나타나는 저주의 내용을 "유대교적"이며 "하층 기독교적"(unterchristlich) 표현들로 이해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역사는 저주의 내용으로 구성된 6-19절을 근거로 시편 109편을 비기

23 서인석, "복수와 저주의 시편", 「오늘의 구약성서 연구」(1991), 209-231; Chalmers Martin, "시편에 나타난 저주" 윤영탁 역, 「구약 논문집」(1) (1981), 115.

24 E. van Wolde, "Trendy Intertextuality?", Spike Draisma(ed.), *Intertextuality in Biblical Writings. Essays in honour of Bas van Iersel* (Kampen, 1989), 45: '후기의 텍스트'(phenotext)에 영향을 주고 '후기의 텍스트'(phenotext)을 결정하는 오래된 '원래의 텍스트'(Genotext)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이 '비교연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5 A. Deissler, *Die Psalmen. III. Teil (Ps 90-150)* (Düsseldorf, 1965), 89.

26 W. Stärk, *Lyrik (Psalmen, Hoheslied und Verwandtes)* (Göttingen, 1911), 196.

독교적인 저주시편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사는 기독교 신앙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서 시편 109편의 신학적 위치를 찾는데 집중했다. 이 연구사는 6-19절에 나타나는 저주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시편 109편 6-19절은 시인의 저주인가? 원수들의 저주인가?”를 두고, 양자(兩者)의 평형을 수용한 활발한 논쟁을 통하여, 시편 109편 6-19절은 원수들의 저주로 인식하는 경향을 형성한다. 이는 특별히 시편 109편에서 발견되는 문학적 특징 때문이다.

시편 첫 번째 단락(1-5절)에서 시인(시적화자Ⅰ)은 ‘그들’(복수형태)의 저주를 탄원한다.²⁷ 이와는 달리 두 번째 단락(6-19절)에서 원수들은(시적화자Ⅱ) ‘그’(단수형태)를 저주한다. 이처럼 한 시편에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시적화자가 존재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단수형태의 시적화자Ⅰ이 ‘그들’(복수형태)에게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복수형태의 시적화자Ⅱ가 ‘그’(단수형태)에게 행하는 저주로 시적상황이 전환되고 있다. 한 시편에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시적화자가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사이 어떤 특정한 정황이 전제되어 있는 것일까?

특별히 H. 궁켈 이후 시편 109편에서 저주의 내용으로 구성된 6-19절을 인용구로 규정하고 있다.²⁸ 궁켈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H. 크라우스는 시편 109편 6-19절을 인용구로 표시하기 위해서 5절에 콜론, 혹은 쌍점(Doppel-

27 본 논문은 시편 109편의 구조에 따라 6-19절을 원수들의 저주로 증명하여 밝히기 전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 단락에 탄원하는 자를 ‘시인(시적화자Ⅰ)’로 언급한다. 그리고 6-19절에서 행위의 주체이며, 탄원하는 자를 ‘시적화자Ⅱ’로 언급한다.

28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476; H.-J. Kraus, *Psalmen 60-150*, 922;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1), 260; A. 바이어, 『시편(Ⅲ)』(김이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57; 바이어는 따옴표를 넣어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punkt)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⁹ E. 쟁어는 시편 109편 6-19절에 관하여 ‘인용-가설’(Zitat-Hypothese)을 언급한다.³⁰ E. 쟁어는 원수들의 저주를 매우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는 인용형식은 시인의 절망과 무력함이 입체적이며 드라마처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인에 대한 원수들의 사회적 테러가 단계적으로 증가(Eskalation)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6-19절을 인용구로 주장하는 견해는 K. 세이볼트의 연구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³¹ 탄원시편에서 시인이 원수들의 말을, 특별히 그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문자적 인용 형태를 취하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비교. 시3:3; 10:4.6.11.13; 12:5; 13:5; 14:1).³² 이러한 현상은 예언서에서도 나타난다. 이때 예언자의 예언과 시편의 기도에 인용 형태는 특별한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사 28:9-10; 시 52:7; 95:8; 132:14; 137:3).³³ 결론적으로 연구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6-19절) 시인은 원수들의 저주를 인용하여 그의 고통을 입체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시편 109편 6-19절의 해석에 관한 한국 구약학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함성국은 그의 「시편해석서」에서 6-19절을 사역하면서 이 단락을 쌍따옴표로 처리하고 있다.³⁴ 유행열은 그의 시편연구서에서 따옴표를 사용하여 6-20절을 인용된 저주의 말들로 규정한다.³⁵ 여기서 지면상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한국 구약학자들의 견해는 시편 109편 6-19절이 인용 부분이라는 관점에 관하여 일반적 연구사에 동의한다. 하지만 6-19절을 시인의 저주가 아니

29 H.-J. Kraus, *Psalmen 60-150*, 922.

30 E. 쟁어, *읽글*, 185.

31 K. Seybold, *Die Psalmen: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Kt, Bd.15, (Mohr Siebeck 1996), 133.

32 E. 쟁어, *읽글*, 185; 이론의 여지없이 직접적인 대화는 시편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예를 들면 시편 2:3; 14:4; 22:9; 28:7; 30:10f; 32:8; 46:11; 50:7).

33 레슬리 알렌, *읽글*, 140-142.

34 함성국, 「시편해석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650.

35 유행열, 「이땅을 시는 시인의 마음: 시편 연구·하」(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5), 207.

라 원수들의 저주로 이해하는 경향에는 관점을 달리한다. 본 논문은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서 시편 109편 6-19절에 논쟁에 관하여 이처럼 제한적으로 소개하며,³⁶ 시편 109편 6-19절을 ‘원수들의 저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연구사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에 시편 109편에서 ‘집단 괴롭힘’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시편 109편의 본문연구

시편 109편의 구조는 시인의 첫 번째 탄원(1-5절), 원수들의 저주(6-19절)와 이를 설명해 주는 ‘간행요목(Kolophon)’(20절)³⁷, 시인의 두 번째 탄원(22-29절) 그리고 그의 마지막 찬양과 신뢰의 고백(30-31절)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언어폭력의 고통을 탄원하는 시인(1-5절)

시편 109편 1-5절에서 시인은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탄원하고 있다. 시인은 2절에서 ‘악한 입’(עַף־פִּי/피 라샤)과 ‘거짓된 입’(פִּי־מִרְמָה/피 밀마) 그리고 ‘속이는 혀’(לִשׁוֹן־רֶסֶס/라손)에 관한 동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원수들의 언어적 폭력에 대한 자신의 고통을 강조한다. 2절에서 ‘열다’(פָּתַח־פִּתְחוֹ/파타후)와 ‘말하다’(דָּבַר־דַּבְּרוּ/답베루)의 3인칭 복수형 동사는 시인의 괴롭히는 ‘언어폭력’의 주체가 다수임을 의미한다. 이어 3절에서 원수들은 ‘미워하는 말’(שֵׁנְאָה־בְּדַבְּרֵי/베디브레 신아)로 시인을 옥여싸며 이유 없이 공격하고 괴롭힌다. 여기서 언어폭력의 다양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시인은 원수들의 언어폭력을 4-5절에서 악으로 선을 갚은 행위로, 그리고

36 이에 관해서는 이일래, “시편 109편 6-19절은 시인의 기도인가? 원수들의 저주인가?”, 『구약논단』 69집 (2018.09), 38-64를 보라.

37 E. 쟁어는 그의 연구서에서 20절에 관하여 중세사본의 간행요목(Kolophon)의 하나(“서명”)라고 설명하고 있다; ‘간행요목’(Kolophon)이란 중세 사본에서 저자, 제목, 간행자, 발행처, 연월일 등의 명시해 주는 부분을 말한다.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은 행위로 체험한다.³⁸ 특별히 4절에서 시인은 1인칭 관련 표현, 동사(תַּחַת אֲחֵרָתִי/타하트 아하바티)와 동사의 목적격 어미(וְנִנְיָטָה/잇테누니) 그리고 1인칭 대명사(אֲנִי/바나니)로 자신의 내적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³⁹ 더 나아가 5절에서 와우-미완료 접속법 동사, ‘וַיִּשְׂמוּ’ (바야시무/‘놓다’, ‘값다’)를 수용함으로 현재의 고통을 자신의 과거의 삶과 대조하며 고통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집단 괴롭힘’으로서 저주

6-19절은 원수들의 저주행위가 표현되어 있다. 히필 명령형(וַיִּקְרָא/할케드)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두 차례 단수 접미사를 가진전치사구(עַל־אֲרַב־נַיִן/알 에미노)를 사용함으로 저주의 희생자를 단수로 수용한다.⁴⁰ 6절에서 이어지는 동사, ‘서다’(וַיַּעֲמֵד/야아모드) 역시 3인칭 단수 형태이다. 이처럼 동사의 대상을 단수로 수용하고, 원수들은 ‘그’를 저주하고 있다.

원수의 저주는 ‘그’(시인)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한다.⁴¹ 원수들은 악인이 시인을 지배하며 대적(שָׂטָן/사탄)의 시인의 오른쪽에 서기를 갈망한다. 동시에 시인의 조상과 후손에 관하여 저주하며(9-13절), 시인의 가문과 혈통의 말살을 다룬다(13-15절). 특별히 원수들은 그들의 저주의 근거와 당위성을, 시인이 타자를 폄박하여 죽이려 한 것과 저주를 즐겨 행한 것으로 제시하지만(16-19절),⁴² 시인은 ‘인용형식’을 빌어 그들의 저주를 입체적으로

38 K. Seybold, *Die Psalmen: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Kt, Bd.15 (Mohr Siebeck, 1996), 133; 시인의 원수들의 그의 삶의 범주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다(29절).

39 Bruce K. Waltke; James M. Houston,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A Historical Commentary* (Cambridge: Wm. B. Eerdmans, 2010), 443.

40 김경수, “시편 가운데 ‘복수와 저주’의 요소를 어떻게 읽을까?”, 77.

41 각주 20. 참조: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1), 258; Uwe Becker, *Exegese des Alten Testament*, UTB 2664 (Tübingen Mohr Siebeck, 2005), 112; Hans Ulrich Steymans, “Segen und Fluch”, RGG 7, 1132.

고발하며 탄원한다. 여기 시인과 한 집단과의 첨예한 갈등은 ‘집단 괴롭힘’의 개연성을 반영하고 있다.

(3)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

시인은 공동체의 저주로 인한 야기되는 자신 고통을 ‘가난하고 궁핍한’ (אֲדָמָה וְעָנִי/아니 베에브론)상황으로 규정하며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한다(22.31절). 시인은 가난 자와 억압받는 자와 쫓기는 자의 왕이신 구원자 야웨의 보호를 호소한다(시 10:16-18; 12:6; 35:10; 40:18; 72:4.12-14; 86:1).⁴³

① 특별히 21절에서 시인은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21a절에서 ‘שְׁמִי’ (쉐메카/당신의 이름)는 ‘אֲתָה’ (알타/당신)와 ‘הוּהוּ’ (엘로힘/여호와)와 그리고 ‘אֲדָנָי’ (아도나이/나의주)와 평행을 이룬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는 유일하게 시인과 관련 있는 ‘עִשָּׂה-אֲתִי’ (아사-알타/나와 함께 행하소서)으로 향한다. 이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시인과 함께하심의 당위성을 야웨의 이름을 근거로 제시할 뿐 만 아니라, 하나님과 시인과의 결속 관계를 이중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שְׁמִי)을 위하여 시인의 상황과 고통에 섬세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이름 때문에” (21절) 야웨께서 원수들의 저주를 중지시켜야만 한다.⁴⁴

② 시인은 22-25절에서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하며 육체 또한 연약한 상황을 탄원하고 있다. 특별히 22절에서 ‘הָלַל’ (할랄)에 관하여 다후드(Dahood)는 모음부호를 응용하여 ‘הָלַל’을 수동태 단수형으로 규정하고, ‘쥘림을 당

42 O. Keel, *The Symbolism of the Biblical Worl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and the Book of Psalms* (Indiana Eisenbrauns 1997), 97.

43 Hossfeld, F.-L. /Zenger, E., *Die Psalmen Psalm 101-150* (Verlag Herder, 2008), 190;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03), 200; 비교: 시 22:8; 71:10; 109:25.

44 R. Rendtorf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ein kanoischer Entwurf* (Neukirchen-Vluyn), 160-161.

했다'고 해석한다. 시인은 원수들의 저주로 인한 고통을 '가난하고 궁핍하여 마음이 상한' 상황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빚어지는 자신의 상태를 석양의 그림자와 메뚜기 메타포를 사용하여 속절없음을 탄원한다. 육체적으로 악한상태와 고통의 증상을 표현함으로써 그의 총체적인 고통을 탄원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는 사회적인 고립 상태를 탄원한다(25절).

③ 26-27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개입을 간청하고 있다. 특별히 시인은 27절에서 “וַיִּדְעוּ” (베에테우/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로 시작되는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רַחֲמֵי)의 개입이 그를 저주하는 원수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기를 원한다.⁴⁵ 특별히 시인은 31절에서 원수들의 저주, 원수들의 집단 괴롭힘을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으로 고발한다. 원수들의 저주를 고발하고 있는 인용문의 첫 소절, “וְשָׂטָן יַעֲמֹד עַל-יְמִינִי:”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변화시킨다.⁴⁶ 시인은 31절에서 “כִּי-יַעֲמֹד לְיְמִין אֲבִיּוֹן” (그가/야웨가 궁핍한자의 오른쪽에서 설 것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야웨가 궁핍한 시인 자신의 오른쪽에 서는 야웨 구원하심을 선회하고 있다.

3. 하갈이 경험하는 '집단 괴롭힘' (창 16장)

1) 창세기 16장에 관한 연구사

창세기 16장에 관한 역사 비평적 연구사는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대주제가 '아브라함과 그의 계약'이라는 틀을 통해서 전개된다고 이해한다. 물

45 E. 쟈어, 「복수의 하나님?」, 185.

46 Hossfeld, F.-L. and Zenger E., 윗글, 192.

론 이 주제는 ‘후손과 땅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이라는 소주제를 포함한다. 연구사는 이러한 구조를 작동시키는 핵심요소를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인내’로 강조하며,⁴⁷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사건에 집중한다. 특별히 폰 라드는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되는 이유를 하갈이야기에서 찾는다.⁴⁸ 역사 비평적 연구사는 하갈 이야기를 고대 근동의 관습과 관련하여 이해하며 ‘가족분쟁’을 가장 중요한 신학적 요인으로 주장한다.⁴⁹ 베스터만은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인간 공동체에 이미 예고된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라와 하갈의 문제는 단순히 “주인과 종”이라는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가족 공동체의 심각한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문학 비평의 시각으로 하갈 이야기를 해석하는 박성진은 ‘광야’의 개념이 문학적 장치로서 작동하면서 구원사건을 성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⁵⁰ 다우브(D. Daube)는 하갈에 대한 사라의 억압을 출애굽 패턴과 비교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억압(출1:11-12)과 연결한다.⁵¹ 쓰베트(M. Tsevat)는 ‘노예와 착취’의 주제를 통해 하갈과 출애굽사건을 연결하며, 쓰베트는 하갈의 영웅적 역할을 강조한다.⁵² 트리블(P. Tribble)은 사라가 애굽의 역할을, 하갈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고 비교분석 한다.⁵³

47 천사무엘, 「창세기 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33.

48 G. von Rad, *Genesis*, OTL London: SCM Press, 1972, 186.

49 박성진, “문학적 접근: 하갈의 설화에 나타난 광야와 구원의 역사”, 『경성대학교 논문집』(경성대학교, 2000), 169; 폰 라트, 「창세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1984), 208; H. Gunkel, *Genesis*, translated by Mark E. Biddle; foreword by Ernest W. Nichols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186; Phyllis Tribble,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 OBT; Philadelphia: Fortress, 1984, 9-35.

50 박성진, 앞글, 169; 구약신학의 관점에서 광야와 하갈을 연결하여 읽어 온 오랜 전통이 있고, 대표적 으로는 궁켈이 있다: H. Gunkel, 앞글, 184-193.

51 D. Daube, *The Exodus Pattern in the Bible*, All Souls Studies (London: Faber and Faber, 1964), 23-38.

52 M. Tsevat, “Hagar and the Birth of Ishmael”, *The Meaning of the Book of Job and Other Biblical Studies: Essays on the Literature on Religion of the Hebrew Bible* (New York: Ktav, 1980), 69-70.

박중수는 하갈의 이야기를 심리학적으로 접근 하여 분석한다. 용이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극중인물의 가면(mask)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처럼,⁵⁴ 박중수는 하갈의 사회적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한다.⁵⁵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갈의 페르조나는 사라의 종으로 있을 때 한 가지 모습(one mask)이었다.⁵⁶ 그런데 아브라함의 첩이 되면서 하갈에게 또 하나의 페르조나가 생긴 것이다. 이를 심리학에서 두 가지 가면이라고 한다. 하갈이 아브라함 첩이 되어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사라와의 갈등을 초래한다.⁵⁷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특별히 갈등의 원인과 동기, 갈등의 발생과 갈등 주체를 하갈로 규정하며, 갑자기 생긴 두 개의 가면을 바람직스럽게 융화시키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⁵⁸

탈식민지 성서비평 연구와 관련하여 스파이저는 하갈 사건의 사회적 관점과 개인적 차원을 동시에 관찰한다.⁵⁹ 스파이저는 하갈의 상황을 ‘정형화 거부’와 ‘서발턴’(Subaltern/하위 주체)의 상황으로 규정하며, 특별히 ‘서발턴’과의 소통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최순양은 그의 논문에서 하갈을 정형화를 거부하는 인물로 하위주체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주체로 설정한다.⁶⁰

53 P. Trible, *Texts of Terror*, 13-14.

54 C.G. Jung, *Collected Works (CW).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vol, pars 800-801.

55 박중수, *읽글*, 9; 참조. H. Gunkel, *Genesis, HAT*, Go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1922, 184-93: 히브리어 ‘광야’는 오경에서 98회 나타나고 있으며, 창세기에서는 단지 7회만 언급되는데, 그중 네 번이 하갈의 설화에(창 17:7; 21:14, 20, 21) 나타나고 있다. 궁켈 이후 연구사는 하갈의 이야기를 광야를 연결하여 읽는다.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된 하갈 이야기(창 16:1-14) 중심에는 ‘광야’가 중요한 모티브로 자리매김한다.

56 이부영, 「분석심리학: C. G. Jung's Thoughts on Mind : C. G. 용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2011), 81: 페르조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아와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가운데 자아는 외부의 집단세계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양식을 익히게 된다. 이것을 용은 외적인격 또는 페르조나라고 하였다.

57 박중수, *읽글*, 21.

58 박중수, *읽글*, 23; N. Sarna, *Genesis*, 120.

59 E.A. Speiser, *Genesis, AB*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2), 119.

60 최순양, “스피박의 서발턴(하위주체)의 관점에서 바라 본 아시아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적 담론에 대

선행연구는 창세기 16장의 주제를 ‘아브라함의 계약’이라는 틀로 해석한 역사 비평적 관점을 확대하며,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이야기의 주제로 환원시키는데 공헌한다. 동시에 해석학적 방법론의 다양성을 통해서 하갈 이야기(창 16:1-14)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해석학적 다층적이며 다각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사를 토대로 창세기 16장을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시편 109편과 함께 읽고자 한다.

2) 창세기 16장의 본문연구

(1) 사라와 아브라함의 집단 괴롭힘(16:2-6)

창세기 16장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16:2-6; 7-14) 16장의 첫 번째 사건(16:2-16)은 두 개의 평행 혹은 교호[交互]구조를 이룬다.⁶¹

A 사라가 제안하다(16:1-2a)

B 아브라함이 동의하다(16:2b)

C 사라의 행동(16:3)

D 하갈의 반응(16:4)

A' 사라가 제안하다(16:5)

B' 아브라함이 동의하다(16:6a)

C' 사라의 행동(16:6b)

D' 하갈의 반응 (16:6c)

한 문제 제기”, 「신학논단」(연합신학대학원 72, 2013, 6), 229-262.

61 브루스 윌키/ 캐시 J.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439-440.

2-6절이 이루고 있는 교호 구조를 통해서 중요한 현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능동적인 주체자로 사건 중심에 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여종”의 신분인 하갈은 피동적이다. 여종 하갈이 사라를 위해 대리모로 이용되는 사건에서도(A-D), 하갈이 학대 받는 사건에서도(A'-D') 아브라함과 사라가 형성한 집단은 하갈을 수단으로 이용할 뿐, 그들이 형성한 집단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다.

대리모로 이용된 하갈은 임신한 뒤 사라를 멸시한다(4절).⁶² 사라는 하갈에게 당하는 멸시를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리며 그를 비난한다(16:5). 사라의 불만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갈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한다.⁶³ 이처럼 사라의 학대는 아브라함의 공적인 동의 속에서 가해진다(창 16:5).⁶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הַעֲנֶה’ (발테안네하/억압하다)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억압을 느낄 정도로 학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6bα절).⁶⁵ ‘עָנָה’의 기본적인 의미는 피엘형(piel)의 경우, ‘기(氣)가 죽은, 곤경에 처한’을 나타내며 ‘עָנָה’는 ‘억압당하고 순종하도록 강요받는’, 또는 ‘고통을 별로 받는’의 의미로 쓰인다.⁶⁶ 여기서 한동구는 6b절의 억압모티브(עָנָה)을 설명한다.⁶⁷

2-6절이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교호[交互]구조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라의 억압과 이를 묵인·동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관찰한 하갈은

62 C. 베스트만, 「창세기 주석」, Text and Interpretation : biblischer kommentar I, (서울 : 한들, 1998), 194. 이러한 현상은 족장들 세계에서 자주 발생한 일이었다. 이 문제를 다루는 함무라비 법전 제146조(참 30:21-23)를 통해 알 수 있다.

63 브루스 윌키, 윗글, 443-444: 윌키는 단지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이해한다.

64 Scharbert, J., *Genesis 12-50*, 141; C. Westermann, *Genesis 12-36*, Minneapolis, (Minn. : Fortress Press, 1995), 240.

65 천사무엘, 「창세기 주석」,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15), 239.

66 김경수, 윗글, 72.

67 한동구, “나그네살이 인생과 자손의 약속 (창 16장)”, 「구약논단」, 제 23집(2007.3), 22.

도망(ברח)을 감행한다(6절).⁶⁸ 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וַתִּבְרַח’ (발팁라흐/그녀가 도망했다)는 자기를 죽이려는 시도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자주 쓰이는 용어이다(27:43; 35:1; 출 2:15; 삼상 19:12, 18).⁶⁹ 이처럼 하갈에 대한 사라의 억압과 사라의 억압에 동조·묵인하는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집단 괴롭힘’의 개연성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וַתִּבְרַח’ (발팁라흐)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하갈은 그들의 ‘집단 괴롭힘’을 죽음의 위협으로 경험하며 도망한다.

(2) 하갈의 집단 괴롭힘에 대한 저항과 고발(16:7-14)

- A 샘에서 하갈을 발견한 야웨의 사자(16:7)
- B 야웨의 사자와 하갈의 대화(16:8)
 - C 하갈의 귀환(שוב)과 복종(ענה)을 명령(16:9)
 - D 자손에 대한 약속(16:10)
 - C' 고통(ענה)을 들음과 이스마엘(16:11-12)
- B' 살피시는 야웨에 대한 하갈의 고백(16:13)
- A' 하갈이 샘의 이름을 붙이다(16:14)

16장의 두 번째 사건(16:7-14)은 교차대구 구조를 이룬다.⁷⁰ 하갈은 사라의 박해로 인해 광야로 도망한 후,⁷¹ 가나안 땅 남쪽, 이집트 국경선 가까이에 있

68 김경수, 앞글, 72: 애굽인이 이스라엘에게 한 학대를 표현할 때 쓰인다(출 1:11-12). 시편 109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עָנָה’의 동사형태(ענה)가 창세기 16장 6절에서 억압모티프(וַתִּבְרַח וַתִּבְרַח וַתִּבְרַח וַתִּבְרַח/발테안네하 사라이 발팁라흐 밋파네이하/사라는 그녀를 학대하니 그녀가 그녀의 면전에서 도망했다)를 발견할 수 있다.

69 고든 웬함, 「창세기 16-50」, 75.

70 비교, 브루스 윌키/ 캐시 J.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439-440.

71 왕대일, “창세기 16장 해석의 재고”, 「신학사상」, 75호 (1991 겨울), 858-859.

는 “수르(Shur)” 길, 샘물 곁에 이른다. 하갈과 만난 야웨의 사자는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שוב/슈비) 그 수하에 복종하라(וְהִתְעַנֵּי/베히트안 니)”고 명령한다(9절). 여기서 6절에서 사용된 억압모티브 ‘עָנָה’을 반복·사용하여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하고 있다. 여기 ‘돌아감’(שוב)의 명령과 억압 모티브가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나타난다. 야웨의 사자의 명령은 학대를 피하여 도망한 하갈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인가? 왜 하갈을 돌아가라고 하는가? 사라의 박해가 정당했다는 뜻인가?⁷² 분명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개입이다.⁷³

이와 관련하여 연구사는 궁궐 이후 하갈과 출애굽을 연결하여,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집을 탈출하는 하갈의 엑소도스(창 16:7-14)를 설명한다.⁷⁴ 박성진은 창세기 16장과 21장의 하갈의 에피소드와 출애굽기 1-15장 속에 나타난 모세의 에피소드를 연결한다. 하갈이 광야에 들어옴으로써 하갈 이야기는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 한다.⁷⁵ 하갈 이야기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비교 연구하면서, 하갈이 모세처럼 영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⁷⁶ 하갈은 한 민족을 세울 수 있도록 변신을 경험하는 인물로 이해한다.⁷⁷ 트리블(P. Tribble)은 창세기 16장을 서로 다른 신

72 왕대일, “창세기 16장 해석의 재고”, 「신학사상」, 75호 (1991 겨울), 871.

73 고든 웬함, 「창세기 16-50」, 75.

74 T.L. Thompson, *The Origin Tradition of Ancient Isreal I: The Literary Formation of Genesis and Exodus 1-23*, JSOTS 35 (Sheffield: JSOT Press, 1987), 194-198; 박성진, “문학적 접근: 하갈의 설화에 나타난 광야와 구원의 역사”, 「경성대학교 논문집」, 21호 2권 (2000), 176.

75 박성진, “문학적 접근: 하갈의 설화에 나타난 광야와 구원의 역사”, 「경성대학교 논문집」, 21호 2권 (2000), 176.

76 하갈의 영웅적 삶에 관한 해석은 다음을 참고하라: A. Brenner, “Female Social Behavior: Two Descriptive Patterns within the ‘Birth of the Hero’ Paradigm”, *VT* 36 (1986), 257-273; J. A. Hackett, “Rehabilitating Hagar: Fragments of Epic Pattern”, P. L. Day(ed.), *Ge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1989), 12-27.

77 박성진, 뒷글. 모세오경을 통해서 광야에서 변신한 인물이 첫 번째 하갈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두 번째 인물이 되다.

분의 두 여성사이의 대결 구조로 규정하며, 학대자와 박해 받는 자의 상황을 주안점을 둔다. 그는 박해의 상황에서 도망으로, 도망의 상황에서 다시 박해의 상황으로 되돌아오는 순환의 모습을 강조한다. 특별히 여기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명령이 공포를 느끼게 한다고 지적하면서,⁷⁸ 하갈의 출산과 관련하여 모성을 밝히기보다는 부성을 밝히는 가부장적 시각을 비평적으로 지적한다.⁷⁹

왕대일은 9절의 히브리어 “복종하다”는 스스로를 낮추리는 명령이며, 스스로를 남의 수하에 두게 하는 자원하는 복종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⁸⁰ 구약성서에 “돌아가라”는 명령은 특히 예언자들의 즐겨 사용하는 용어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공존하는 삶을 부르짖었던 예언자들의 사상적 어조였다고 이해한다.⁸¹ 왕대일은 하갈의 고통이 사라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할 때, 하갈이 사라와 더불어 지내는 조화·공존·화합의 실천이 있는 곳에만 하갈의 아픔은 치유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⁸²

선행연구사는 하갈의 귀환을 명령하는 야웨의 요청에 관하여 구원사적 관점에서 하갈의 영웅적 역할로 해석하거나, 부성을 밝히는 것에 충실한 편집적 추가부분으로 결정하거나, 공존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본문이 말하는 신학적 의미를 찾는데 충실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갈의 귀환을 명령하는 야웨의 요청과 집단 괴롭

78 P. Tribble, *Texts of Terror* (Philadelphia: Fortress, 1984), 16.

79 박성진, “문학적 접근: 하갈의 설화에 나타난 광야와 구원의 역사”, 『경성대학교 논문집』, 21호 2권 (2000), 176; 창세기 21장과 관련하여, 모세의 출애굽과 유추하여 하갈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한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이며, 노예이며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분쟁을 유도하며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을 예고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한편으로는 쫓겨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의미심장한 해방의 행위였다.

80 왕대일, “창세기 16장 해석의 재고”, 『신학사상』, 75호 (1991 겨울), 873.

81 호 6:1; 7:10; 14:3; 렘 3:7; 열상 8:33, 48.

82 원글.

힘과 갈등해결을 위한 성서적 대안에 관한 신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교차대구 구조 속에서 짝을 이루는 BB'는 야웨의 사자와 하갈의 대화를 통해서(16:8) 하갈이 살피시는 야웨를 경험한다는 것(16:13)을 보여준다. BB'의 주제가 CC'에서 수용되어 전개된다. 하갈의 귀환(שוב)과 복종(ענה)을 명령(16:9)하는 야웨는 하갈의 고통(ענה)을 들으셨기 때문이다(16:11-12).

9절에서 학대를 피하여 도망한 하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וְהָתַעַנִּי/바히트안니)”는 명령은, 6절에서 사용한 동일한 단어 ‘ענה’를 사용한다.⁸³ 그러나 9절에서 6절과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한다. 6절에서 ‘ענה’의 기본적인 의미는 피엘형의 의미로 쓰인다.⁸⁴ 이와는 달리 9절에서 ‘וְהָתַעַנִּי’(바히트안니/복종하라)는 ‘ענה’의 히트파엘형으로 재귀형동사이다. 자신을 스스로 그 복종의 수하에 두는 것을 말하며, 자원하는 복종을 의미한다.⁸⁵

더 나아가 6절의 억압모티브는 9절에서 ‘자원하는 복종’으로 수용될 뿐만 아니라, 11절(בִּי־שָׁמַע יְהוָה אֶל־עֲנֵיךָ)에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야웨 이해로 전환하여 작동한다.⁸⁶ 여기서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야웨를 경험한다. 창세기 16장 6절과 9절 그리고 11절에서 서로 다른 함축적 의미로 사용된 동일한 동사, ‘ענה’의 문학적 기능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갈의 귀환(שוב)과 복종(ענה)을 명령(16:9)하는 명령은, 하갈을 향하여 주체적인 삶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⁸⁷

최종적으로 교차대구 구조 속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이 (16:10)절정(D)이 되고 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집단 따돌림의 현장에서 ‘정형화 거부’하고 주체적인 하갈에게 주어진다. 하갈에게 주어지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

83 브루스 윌키/ 캐시 J.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448.

84 김경수, 앞글., 72.

85 왕대일, “창세기 16장 해석의 재고”, 「신학사상」, 75호 (1991 겨울), 873.

86 정석규, “창세기 16장의 구조분석적 해석”, 「구약논단」, 제 23집(2007.3), 38.

87 박종수, 앞글., 9.

같은 ‘복종’의 대한 댓가로 이해하는 것은 하갈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써 신학적 의미를 상실 할 수 있다.⁸⁸ 집단 따돌림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아웨의 요청에 순종하는 하갈의 행위는 집단 괴롭힘과 갈등해결을 위한 성서적 대안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신학적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4. 상호텍스트적인 연결(Intertextuelle Verknüpfungen)

시편 109편에서 두 가지 상호텍스트적인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시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언급되어 있다. 다윗을 저자로서 언급하고 있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9편의 신학적 위치를 위해 다윗의 생애와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⁸⁹

또 다른 경우의 상호텍스트성의 관계는 시편 109편과 창세기 16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편 109편에서 시인은 공동체의 저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가난하고 궁핍한’(עָנִי וְרָעִי)상황으로 규정한다(22절). 본 연구는 시편 109편에 나타나는 ‘עָנִי’의 동사형태(עָנָה)가 특별히 창세기 16장 하갈 이야기에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 집중한다(창16:6). 여기서 두 텍스트는 두 텍스트 사이에서 발견되는 언어적 일치들 통해서 대화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시편 109편에 반영되어 있는 ‘집단 괴롭힘’의 개연성이 창세기 16장의 공통적인 제재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며, 두 본문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에 의해 작동되는 해석학적 형태에 집중한다. 본 연구는 시편

88 박성진, 율글, 176.

89 U. Bail, 율글, 149.

109편과 창세기 16장의 종속, 의존의 양상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두 본문의 역사적, 전승적 관계를 다루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성은 ‘비교연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들은 시간상으로 ‘앞으로부터’도 ‘역으로도’ 서로 관련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각각의 모든 작품은 다른 작품의 연대와 무관하게 서로 상관관계를 형성 한다”는 상호텍스트성 특성에 근거하여, 시편 109편과 창세기 16장을 상호텍스트성으로 분석한다.

1) 집단 괴롭힘과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 탄원과 도망(창궁)

시편 109편에서 시인의 원수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시인을 저주하는 현상은, 창세기 16장에서 여종 하갈이 사라를 위해 대리모로 이용되고 학대 받는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형성한 집단이 하갈을 그들이 형성한 집단으로부터 제외시키고 하갈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상황과 유비를 이룬다. 여기서 상호텍스트성을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집단 괴롭힘의 형태는 언어폭력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⁹⁰ 하갈에 대한 사라의 비난(5절)과 아브라함에 대한 사라의 불만(5절), 그리고 사라에게 하갈 처분권을 일임하는 아브라함의 방임(6절), 이 현상에서 빚어지는 하갈이 제외된 사라와 아브라함의 대화는 하갈에게 언어폭력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베스터만은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인간 공동체에 이미 예고된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방의 갈라섬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⁹¹ 그렇다면 하갈은 자신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갈은 ‘도망’(창궁)을 감행한다.

상호텍스트성은 두 본문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여기에서 발견되는 공통 주제를 대화의 중심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시편 109편의 시인이 집단

90 윗글.

91 C. Westermann, Genisis 12-36, 240.

의 언어폭력인 저주에 직면하여 하나님에게 고발하고 폭로하고 탄원하듯이, 하갈은 ‘도망’ (נָסָה)을 감행함으로써 집단 괴롭힘에 저항한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스트만은 하갈의 도망 사건을 “억압에 대항하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로 규정한다. 하갈의 이야기를 개인 탄원시와 함께 읽는 신학적 작업은 ‘집단 괴롭힘’ 희생자의 트라우마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집단 괴롭힘’에 침묵하지 않는 개인의 적극적 저항을 유추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집단 괴롭힘과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 돌아감(נָשָׁב)과 약속

창세기 16장 9절에서 하갈과 만난 야웨의 사자는, 이미 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억압모티브 ‘עָנָה’을 수용·반복하며 사용하여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하고 있다. 여기 억압 모티브가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사의 접근은 창세기 16장은 “가나안 땅에서 사라와 하갈”(창 16:2-6), “수르 광야로 간 하갈”(창 16:7-14),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 하갈”(창 16:15-16)이라는 순환 구조에 집중한다. 하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이 될 것이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10절)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가야 할 이유라고 이해한다.⁹² 하갈이 돌아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⁹³ 이러한 해석은 부성을 밝히는 것에 충실한 추가 편집 작업(15-16)으로 비평받으며,⁹⁴ 하갈을 가부장적 사회 제도에 희생당한 희생자로 고발하는 시각을 산출 한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사의 관점은 하갈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해 사라와 아브라함이 형성한 집단에 하나님이 합류하는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92 Scharbert, J., *Genesis 12-50*, 143.

93 천사무엘, 「창세기 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41.

94 박성진, 윌슨, 176.

집단 괴롭힘에 동조하며 합류하는 있는 것일까? 창세기 16장과 시편 109편이 상호텍스트성으로 서로 대화한다면 앞에서 제시된 질문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통을 들으시는 하갈의 하나님 이해는⁹⁵ 상호텍스트성을 통해서 시편 109편 31절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를 소환한다. 시편 109편에서 집단 저주로 고통 받는 자 편에 서는 하나님 신학은 창세기 6장의 하갈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해와 서로 대화한다. 시편 109편에서 야웨가 시인의 오른 쪽에서 서서 그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원수들이 인식하고 알기’를 원하는 시인의 사회적 수용의 소망을 소환한다.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야웨의 명령은 ‘집단 따돌림’이 자행된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한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집단 따돌림’이 자행된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목전에서, 하갈을 위해 개입하여 일하신다: 하갈의 능동적인 귀환과 이스마엘의 출생. 집단 괴롭힘의 성서적 대안은 집단 괴롭힘의 책임을 집단에게 물으며, 집단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간섭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집단 괴롭힘과 갈등해결을 위한 성서적 대안을 찾기 위해 상호텍스트성을 방법론으로 시편 109편과 창세기 16장을 함께 읽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집단을 형성하여 하갈을 학대한다. 하갈은 ‘집단 괴롭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을 감행한다. 시편

95 정석규, “창세기 16장의 구조분석적 해석”, 「구약논단」, 제 23집(2007.3), 38.

109편의 시인은 집단저주에 직면하여 집단의 언어폭력을 하나님에게 고발하고 폭로하고 탄원한다. 하갈은 도망은 시편 109편의 시인의 탄원과 유비를 이룬다. 여기서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사라와 아브라함의 집단 괴롭힘의 형태는 언어폭력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하갈의 이야기를 개인 탄원시와 함께 읽는 신학적 작업은 ‘집단 괴롭힘’ 희생자의 트라우마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집단 괴롭힘’에 침묵하지 않는 개인의 적극적 저항을 유추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광야에서 하갈을 만난 야웨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한다. 하갈의 ‘도망’을 ‘돌아감’으로 수정한다. 이 사건은 상호텍스트성을 통해서 시편 109편 있는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를 소환한다. 시편 109편에서 야웨가 시인의 오른쪽에서 서서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을 ‘원수들이 인식하고 알기’를 원하는 시인의 사회적 수용의 소망을 소환한다. 이는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 3자의 개입과 간섭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처럼 하갈의 ‘돌아감’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이 ‘집단 따돌림’의 사건과 관련하여 하갈의 사회적 재수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참고문헌

김경수, “시편 가운데 ‘복수와 저주’의 요소를 어떻게 읽을까? 시 109편의 분석을 통해”, 『교수논문집(한영신학대학교)』 2 (1998), 73-92.

김소영, 노강욱, 『교사를 위한 학교폭력의 이해』(서울: 창지사, 2013).

김규태, 방경곤, 이병환, 윤혜영, 우원재, 김태연, 이용진 공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파주: 양서원, 2013).

김봉년, 『아이의 친구관계, 공감력이 답이다 : 서울대의대 김봉년 교수의 왕따 처방

www.kci.go.kr

- 전」(서울 : 조선앤북, 2012).
- 김윤재, “청소년 비행 지도를 위한 권면적 상담에 대한 고찰”, 「교수논문집 (한영신학대학교)」 2 (한영신학대학교, 1998) 186-199.
- 김정우, “시편의 저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편 69편에 대한 정경적 해석”, 「신학지남」(1999 가을) 107. 102-181.
- 김정준, 「시편명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 김현성, “집단 따돌림 담론을 통해 본 청소년 주체형성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14권 3호, 41-63.
- 김혜원, 「청소년 학교폭력 :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서울: 학지사, 201)3.
- 마틴, C. “시편에 나타난 저주” 윤영탁 역, 「구약 논문집」(1) 총신대학출판부 1981, 115-125.
- 마이저 A., 「시편(III)」, 김이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박성진, “문학적 접근: 하갈의설화에 나타난 광야와 구원의 역사”, 「경성대학교 논문집」 21호 2권 (2000), 169-188.
-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2).
- 박종수,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본 하갈이야기”, 「구약논단」 통권16호 (2004. 4), 21.
- 베스터만 C., 「창세기 주석」(서울: 한들, 1998).
- 브루스 윌키/ 캐시 J. 프레드릭스,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서인석, “복수와 저주의 시편”, 강성열 옮김. 「오늘의 구약성서 연구」 성바오로출판사 (1991), 209-231.
- 앤드류 레스터, 「희망의 목회상담」신현복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 오혜영, 이유미, 김승혜, 최희영,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편」(서울: 학지사, 201)4.
- 유행열, 「이땅을 사는 시인의 마음I: 시편 연구·하」(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5).
- 이관직, 「목회심리학」(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이관직, 「성경인물과 심리분석」(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 이규미, 지승희, 오인수, 송미경, 장재홍, 정제영, 조용선, 이정윤, 유형근, 이은경,

- 고경희, 이부영, 「분석심리학: C. G. Jungs Thoughts on Mind : C. G. 융의 인간심성론」(서울: 일조각, 2011).
- 이일레, “고난 받는 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관계성(social relationship)” 「구약논단」 62집(2016.12), 102-128.
- _____, “히브리산파들의 저항과 “시편 언어”의 친연성(親緣性) - 상호텍스트성으로 본 출애굽기 1:15-22절과 시편 34편 -” 「구약논단」 66집 (2007년 12월), 42-73.
- 정석규, “창세기 16장의 구조분석적 해석”, 「구약논단」, 제 23집(2007.3), 38.
- 정현진, “시편 제4집에서 본 시편 102편: 믿음으로 찾아 낸 허무한 인생과 충만한 인생의 균형”,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 김이근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서울: 한들, 2006), 173-216.
- 최순양, “스피박의 서발턴(하위주체)의 관점에서 바라 본 아시아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적 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 「신학논단」(연합신학대학원 72, 2013.6), 229-262.
- 코저, L.A. 「갈등의 사회적 기능」 박재환 역, (서울: 한길사, 1980).
- 폰 라트, 「창세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1984).
- 한동구, “나그네살이 인생과 자손의 약속 (창 16장)”, 「구약논단」, 제 23집(2007.3), 22.
- _____, “지역공동체의 갈등과 해결을 위한 성서적 가치의 적용” 「구약논단」 제 21권 1호(통권 55집) (2015, 3), 160.
- 함성국, 「시편해석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Bail, U., *Gegen das Schweigen klagen. Eine intertextuelle Studie zu Ps 6, Ps 55 und der Erzählung von der Vergewaltigung Tamars* (Gütersloh 1998).
- _____, “Vernimm, Gott, mein Gebet. Ps 55 und Gewalt gegen Frauen”, Hedwig Jahnow(ed.), *Feministische Hermeneutik und Erstes Testament. Analysen und Interpretationen* (Stuttgart-Berlin-Köln 1994).
- Becker, U., *Exegese des Alten Testament*, UTB 2664 (Tübingen Mohr Siebeck 2005).
- Berger, K.S., “Update on bullying at school: Science forgotten?” *Developmental Review*, 27(1), 2007, 90-127.

- Brenner, A., “Female Social Behavior: Two Descriptive Patterns within the ‘Birth of the Hero’ Paradigm”, *VT* 36 (1986), 257–273.
- Broich, U., “Formen der Markierungen von Intertexten”, Ulrich Broich/Manfred Pfister(ed.), *Intertextualität. Formen, Funktion, anglistische Fallstudien* (Tübingen 1985).
- Butting, K., *Die Buchstaben werden sich noch wundern*, Erev-Rav 1998.
- Daube, D., *The Exodus Pattern in the Bible, All Souls Studies* (Londeon: Faber and Faber, 1964), 23–38.
- Deissler, A., *Die Psalmen. III. Teil* (Ps 90–150) (Düsseldorf 1965).
- Eslinger, L., “Inner-biblical Exegesis and Inner-biblical Allusion: The Question of Category”, *VT* 42 (1992), 47–58.
- Gerstenberger, E. S.,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1).
- Gunkel, H.,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_____, *Genesis*, translated by Mark E. Biddle ; foreword by Ernest W. Nichols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 Hackett, J.A., “Rehabilitating Hagar: Fragments of Epic Pattern”, P. L. Day(ed.), *Ge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1989).
- Heinemann, P. P., *Mobbing. Gruppevold blant barn og voksne* (Oslo: Gyldendal. 1973).
- Hawthorn, J., *Grundbegriffe monderner Literaturtheorie: ein Handbuch* (Tübingen-Basel, 1994).
- Jung, C.G., *Collected Works (CW).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 Keel, O., *The Symbolism of the Biblical Worl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and the Book of Psalms* (Indiana Eisenbrauns 1997)
- Kraus, H.-J. *Psalmen 60-150*, BK XV 1, Neukirchen-Vluyn 1989.
- Rendtorff, 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ein kanoischer Entwurf* (Neukirchen-Vluyn, 2002).
- Scharbert, J., *Genesis 12-50, Die Neue Echter Bibel* 16 (Würzburg 1986).

- Stärk, W. *Lyrik (Psalmen, Hoheslied und Verwandtes)* (Göttingen, 1911).
- Seybold, K., *Die Psalmen: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Kt, Bd.15 (Mohr Siebeck 1996.)
- Steymans, H. U., “Segen und Fluch”, RGG 7, 1132.
- Suchsland, I., *Julia Kristeva zur Einführung* (Hamburg 1992).
- Thompson, T.L., *The Origin Tradition of Ancient Israel I: The Literary Formation of Genesis and Exodus 1-23*, JSOTS 35 (Sheffield: JSOT Press, 1987)
- Trible, Phyllis.,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 (OBT; Philadelphia: Fortress, 1984).
- Tsevat, M., “Hagar and the Birth of Ishmael”, *The Meaning of the Book of Job and Other Biblical Studies: Essays on the Literature on Religion of the Hebrew Bible* (New York: Ktav, 1980), 69-70.
- van Wolde, E., “Trendy Intertextuality?”, Spike Draisma(ed.), *Intertextuality in Biblical Writings. Essays in honour of Bas van Iersel* (Kampen 1989), 43-49.
- von Rad, G., *Genesis*, OTL (London : SCM Press, 1972).
- Waltke, Bruce K./ Houston, James M.,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A Historical Commentary* (Cambridge: Wm.B.Eerdmans 2010)
- Westermann, C., *Genesis 12-36* (Minneapolis, Minn. : Fortress Press, 1995).
- Jung, C.G., *Collected Works (CW).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검색어

집단 괴롭힘

갈등해결

창세기 16장

시편109편

상호텍스트성

〈Abstract〉

Biblical Alternative Research on Mobbing and Conflict Resolution based on Psalm 109 and Genesis Chapter 16

Il-Rye Lee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Ruhr-Bochum University, Dr. theol.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ading of Psalm 109 together with Genesis 16 with the methodology of intertextuality to find biblical alternatives to group bullying and conflict resolution. In Genesis 16, Sarah and Abraham form a group and abuse Hagar. Hagar runs away to protect herself from the danger of ‘group bullying.’ In the face of mass curses, the poet of Psalm 109 files a complaint, exposes and pleads against God for the verbal abuse of a group. Hagar’s escape is compared to the poet’s supplication. Here, through intertextuality, the form of group bullying of Sarah and Abraham can be embodied by

www.kci.go.kr

verbal abuse. The theological work of reading Hagar's story with a personal petition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can shed light on the trauma of the "group bullying" victim while also inferring active resistance from an individual who is not silent on "group bullying."

Meeting Hagar in the wilderness, the messenger of Yahweh commands Hagar to "go back to your mistress and submit to her." Hagar's 'flee' is modified to 'go back.' This case summons an important theological motif in Psalm 109 through intertextuality. Psalm 109 summons the poet's desire for social acceptance that "enemies recognize and know" that Yahweh stands on the right side of the poet and works for him.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ird-party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of "group bullying." As such, God's demand for Hagar's "go back" means that God directly intervenes in Hagar's social re-acceptance in connection with the "group bullying" incident.

Keywords

Mobbing

Conflict Resolution

Genesis Chapter 16

Psalm 109

intertextuality

- 투고일: 2020년 10월 14일
- 심사일: 2020년 10월 26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30일

www.kci.go.kr